

병역특례 업체기준 완화 요청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축소 과정에서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종업원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최근 병무청이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역특례업체 신청자격을 기존의 종업원수 5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인 업체로 강화한데 대해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심한 소규모 기업들

에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이번 신청자격 요건강화 조치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관계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기협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상반기 6.3%에서 하반기

기에는 9.9%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종업원수 20명 미만인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무청의 이번 조치는 업계의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사로 관련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기협중앙회는 병무청의 병역특례업체 지정기준 강화조치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 줄 것과 아울러 보충역 자원의 탄력적 운용 등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청, 中企지원대책 회의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최근 은행 및 보증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지원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금년도 제2차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와 PL법 시행, 인력난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요인 해결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환경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금융관련애로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석영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주5일 근무와 관련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와 거래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7. 1일부터 시행되는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관심 및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PL우수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전문직, 대기업근로자, 공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재직자에 대한 신용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설비구매특례자금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이버 수출상담장 설치

산업자원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중 KOTRA 본사와 국내외 40개 무역관에 사이버 수출상담장을 설치키로 했다.

이 상담장에는 인터넷 화상

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곧 바로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9월 중 일본을 대상으로 농수산식품·관광용품 상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 최저세율 인하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8%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보완 과제 건의서'에서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8%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나

R&D(연구개발) 투자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저한 세 제도는 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을 정한 것으로 현재 중소기업은 12%를 적용받고 있다.

출판예정도서 표준목록제도 시행

국내에도 출판예정도서표준목록(CIP) 제도가 시행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전국 출판

사를 대상으로 CIP제도 및 참여방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갖고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CIP 제도

는 출판사가 신간도서를 출판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신간자료의 표준목록을 도서에 인쇄토록 함으로써 신간도서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서관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한 제도다.

“중소인적자원특별법 제정을”

중소기업계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촉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이 PL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자금을 별도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동안 부족인력을 외국인산업연수생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충당해 왔으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인력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촉진 특별조치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관련 일본의 경우 '제품안전성 향상자금'을 별도로 신설해 장기저리

로 융자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수출경쟁력 강화라는 PL법 제정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별도 자금을 조성,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금융권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시행초기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금융애로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토요일 수출환어음 네고불가에 따른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거점점포를 확대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금리의 자금조달이 필수라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활용, 저리자금을 협동조합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부, 출판만화 적극육성

출판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이 마련됐다.

문화관광부는 국내 출판만화산업의 질적 성장과 우수만화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 창작만화와 만화 관련 도서의 제작·출판을 대상으로 예술적 또는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만화의 발전과

시장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만화 또는 관련 도서를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20여편의 지원대상과제를 선정, 과제별로 총 제작비의 50% 이내에서 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